



현대불교 연중캐릭터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시다 <글>

무분별한 승려의제

선종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중의 하나는 5조 홍인이 삼경 깊은 밤 은밀히 혜능을 불러 의발을 전하는 모습이다. 승복은 전법(傳法)의 상징이다. 하필이면 의발인가. 먹고 입었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너무 익숙한 것에 가장 큰 뜻을 담았던 것은 아닐까. 주요 사찰에서 가사 불사를 병행하는 것도 법을 잇는 스님들에 대한 공경의 뜻이다.

그러나 요새 스님들의 옷을 보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사는 짙은 방색 또는 빨간색이지만, 장삼의 색깔은 여러 가지이다. 대부분 회색이지만, 어떤 스님들은 검은색, 또는 짙은 군청색 장삼을 입고 있다. 어떤 종단의 스님들은 평상시 행사에도 예사로 금관가사를 휘감는다. 최근에는 남방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하늘색 장삼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불자들은 불교와 유사한 종교의 수행자가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조계종 의제법은 가사 장삼 광복 등으로 의제를 구분하고 색깔도 있다. 모자에 대해서도 종령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30여년 전인 62년 제정된 것이요 18조에 불과해 자세한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96년 의제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몇 차례 열어 개혁안까지 마련했다. 무질서한 승가의 의복을 정비,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법다운 의제를 실현키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몇 차례의 조계종 사대로 승복이 부끄러움의 상징이 됐다고 스님들 스스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의제의 정비를 통해 흐려진 승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人天)의 스승으로서 상구보리 하회중생하는 본분사에 충실할 때 승복은 불법(佛法)의 상징으로 더욱 빛날 것이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opia.com)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배격'

조계종 포교원 "조직확대 선행"-준비위 "정체성 확립 우선"

"여성불교운동 활성화 담보 우려" 여론

새천년 여성불교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가장 불교여성개발원이 준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같은 상황은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측이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확대가 우선이나,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라는 방법론상의 견해차에 직면함으로써 발생했다.

15일 포교원에서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회의에서 포교부장 현진섭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인원동원을 통한 조직구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측은 "지금은 출발단계이므로 여성불자들의 자발적 동기

이므로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했다. 포교원의 전체실무를 관장하는 부장스님이 더 이상 여성불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측은 "인원만 확보해 놓고, 제대로된 사업 방향을 찾지 못해 와해돼왔던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적 역량과 사업계획을 갖춘 후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동안 회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문제는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초기부터 우려해 온 포교원과 포교부장 문제가 표면으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독자성을 가지면서 종단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6월 여성불자들의 새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계기로 창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초 12월 내에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들의 교육과 인재양성의 장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포교원측과 준비위측이 다시한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은자 기자 (eylee@buddhopia.com)

태고종 10대총회 개원

의장에 남파스님 내년에산 19억 통과

태고종 제10대 중앙총회가 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개원식을 갖는 한편 7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에 유남파스님, 부의장에 김법정스님과 김대운스님을 선출했다. 또 운영분과위원장에 인공, 교육분과위원장에 지하, 재정분과위원장에 법선, 법제분과위원장에 운경, 교육분과위원장에 운곡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태고종 총회는 또 스태고사 및 선암사 성역화 △종단자료 및 각종 법령집 발간 △종무행정 전산화 △북한불교 지원 및 교류 △국가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봉행 △선암사 장경각 경관 정대불사 등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19억6천여만원(직할 선암사에산 6억3천5백만원 포함)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경숙 기자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자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다. 텅 비워서 더 넉넉해 보이는 겨울 풀벌레 같은 사람들. 더 말할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우리는 "정신대 할머니"라고 부른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20세기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악몽이었을

까? 이제 또 한 세기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웅으로 얼룩진 우리의 20세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 강점기, 6·25, 4·19, 5·16, 유신 그리고 IMF.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자. 정신대 할머니들의 저 밝은 웃음을 달자.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미래란 없다. 차분히 지난 날을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자.

신규가입종단 심사위 구성

종단협, 거래손잡기도 적극 참여키로

종단협의회는 21일 서울광동의 승려 및 신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심의위원회는 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종 등 9개 종단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종단협 가입을 희망하는 종단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의 방북(11.24~30) 결과를 보고받았다. 종단협의회는 내년 3월 1일 실시되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에 범종단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정성윤 기자



관(觀)과 안(安)자를 합성하여 원(元)으로 현대불교는 2000년 한해 이 심플을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의미로 사용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새천년 불국토 건설'의 심볼로 사용 본사 새해 1년동안, 재미화가 문범강씨 작품

'불국토 건설'을 새 천년의 화두로 삼은 현대불교는, 그 해답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팔정도'나 보살의 길을 제시한 '육바라밀'의 실천도 '자기를 바로 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근본적 이미지나 종군 다름 또는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불자들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비판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향의 도리로 그러한 상황을 성찰하는 불자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대불교는 조금은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실 새 천년의 대안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마련이 된 것입니다. 현대불교의 제인은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2000년의 지면 제작 방향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삼고 그 구체적 방법을 지면에 담은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범강

* 위 심플을 만든 문범강 씨는 미국 하와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조지타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작품 사상을 통해 사회현상과 현대불교 독자들과의 신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계종교의회 달라이라마등 7천명 참석

21세기 '삶의 가치관' 제시

'99 세계종교의회가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정신적 열망과 성스러운 가능성"을 주제로 달라이라마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7천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세계를 선도하는 단체들의 소명(A Call to Our Guiding Institutions)"을 발표, 함께 가꾸어 나가는 미래 공동체를 제시해 주목된다. 에이즈 사망자 추모 행사로 시작된 종교의회는 각 종교의 전통적 명상과 기도회, 800여 개의 각종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종교의회는 각 계층과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게 세계적 상황 윤리와 당위를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과 권고를 담은 70쪽에 달하는 윤리헌장 '세계를 선도하는 단체들의 소명'을 공표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8003478번

새해맞이 토함산 기원대축제 (대동한마당)

일시: 1999년 12월 31일 밤 10시 ~ 2000년 1월 1일 오전 8시 장소: 토함산 석굴암 통일대종광장

천년 불심이 살아 숨쉬는 경주 토함산! 민족의 불심을 재확인할 석굴암 부처님!

토함산 불국사는 경주세와 품음으로 새 천년의 희망을 함께 기원하는 민족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에서 열려져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불명과 땅목의 예세를 뒤로하고 화합과 희망의 새 천년을 기원하는 민족의 마당에 사부대중 여리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새해맞이 짙음이
• 새해맞이 세린잔치

타종식

• 해맞이 중정 예하 면어
• 정대 총무원장 큰스님
신년 메시지

새 천년맞이 대동한마당

• 조평 및 멀티폭죽쇼
• 축하공연

새 천년의 설렘

• 희망의 탐 메시지
• 새 천년의 소회

새 천년의 환희

• 짙음의 열기
• 대동잔치
• 새해맞이 공연
• 새해맞이 대동한마당

■ 주최 및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 경주시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국대학교, 법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국, 불교TV
■ 협찬: 경북관광개발공사 ■ 진행: 불국사 신도회 ■ 연출: 서인주 외 ■ 기획: 살판 21
■ 증명: 중정 해암 대중사, 원로회의 의장 탄성 대중사, 총무원장 정대 대화상
■ 고문: 조계종 중회의장 법등, 조계종 교육위원장 일민, 조계종 포교원장 정현, 불국사 신도회장 변영우, 경북도지사 이이근, 국회의원 김일운, 임진출, 도의회위원장 장성호, 경북관광개발공사시장 이은덕, 대구고등법원장 지용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송인준, 도교육감 도성희, 도경찰청장 김중우, 동국대부총장 최규철, 법보신문 편집국장 정유, 박물관장 김우명
■ 추진위원장: 불국사 주지 이성터, 경주시장 이원식 ■ 추진위원: 시의회위원장 이상수, 경주지원장 이대경, 경주지정장 이상현, 경주경찰서장 김영록, 새무시장 박지희, 소방서장 이수길
■ 집행위원장: 석굴암 주지 김중상 ■ 집행위원: 총무 징주, 기획 증문, 홍보 중진, 재정 정문, 섭외 정경, 경주시, 알, 경실련, 청심기사협회, 불국사대회, 합정당, 진여회 불국동 영산회, 구정동 영산회, 교정 불자회, 어린이 합정당, 자모회, 서광회, 구품연지, 보현회, 금강회, 운불원, 교사불자회, 군불자회, 군불교 후원회, 카누나, 어린이법회 자모회